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19호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선임

**문체부가 요청한 '문체부 제2차관' 성추행 의혹조사, 어떻게 되나**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 스포츠의과학 토론회

**체육회-문체부, 스포츠의·과학지원 놓고 팽팽한 입장차**

김경윤 연합뉴스기자

### 전북체육회

**부하직원 폭행 혐의 전북체육회 간부 검찰 송치**

오정현 KBS NEWS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년 스포츠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종도 이투뉴스기자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서포터즈 '2022 국대 스마터즈' 모집**

이한주 스포츠투데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문체부가 요청한 '문체부 제2차관' 성추행 의혹 조사, 어떻게 되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선임 과정부터 선임 이후까지 관계, 체육계가 시끌시끌하다.

국내외 스포츠, 관광 정책을 전담하는 문체부 제2차관 선임을 두고 지난 몇 주간 하마평이 잇달았다. 스포츠를 이해하는 실무형 차관 선임을 바라는 체육계의 기대가 높았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체부 제2차관에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조폐공사 사장 출신 조용만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전격 선임했다. 대선기간 중 윤석열 캠프에서 활약했던 김승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됐다. 대한체육회 전현직 사무총장이 모두 입각하면서, '스포츠계 빅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IOC위원)의 천거설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조 선임 차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인지한 문체부는 즉각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대한체육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9조2(조사 이관) '성폭력 행위자가 회장 또는 상임임원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처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주무부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체부가 곧바로 개입했다.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티비는 '조 차관이 지난달 회식중 체육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체부 선임 차관이 첫 출근을 하기도 전 문체부 담당부서가 '상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는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성 관련 의혹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확고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명명백백 가려져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제기된 의혹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오랜 갈등 관계, 내부 반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이후 대한체육회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50% 요구,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스포츠 의·과학 직접 지원 법안 발의 등에 대한 의견 차까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은 골 깊다. 그 와중에 기재부 출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문체부 차관으로 오게 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첫 문체부 제2차관의 의혹에 정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조 차관은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대응조치가 완화된 4월말 고생한 부서 직원들과 첫 회식을 했다. 다음날 아침 본부장을 통해 옆에 앉은 여직원 둘이 불편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의도는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직원들이 사과를 수용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본인들의 이의 제기는 없었는데 제3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누군가 이야기를 키우는 것 같다. 해당 직원들도 당혹스러워 한다고 들었다. 팩트는 확인해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역시 "이와 관련 보고 받은 일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우리 직원 피해자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모르겠나"라고 일축했다.

대한체육회에 이 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피해 신고는 올라오지 않았다. 피해자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문체부 공문에 의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 신고가 없었던 만큼 명예훼손, 2차 가해 등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사실 관계가 파악되기 전까진 설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여직원들의 입장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여직원들의 직접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폭력 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대한체육회의 조사, 문체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의혹의 실체를 가리는 데는 수주가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육회·문체부, 스포츠의·과학 지원 놓고 팽팽한 입장차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학원)은 엘리트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돕는 스포츠의·과학 지원 활동 주체를 놓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단체들은 11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국가대표 스포츠 의·과학 훈련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 의·과학 지원 활동을 양대 체육회가 전담해야 한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원은 지금처럼 과학원이 활동을 책임지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엔 250여 명의 체육인이 모여 높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 ◇ 양대 체육회 "과학원의 지원활동은 연구 중심...체육회가 직접 맡아야"

발제에 나선 대한체육회 김보영 의과학부장은 "과학원은 그동안 '종목의 요청'이 아닌 '과학원 연구위원의 필요'에 의한 지원을 했다"며 "국가대표 선수촌의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체육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체육회는 식단, 영양, 의학 지원 등 훈련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선수의 모든 데이터는 선수 관리주체인 체육회 및 종목단체에서 관리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분산된 스포츠 의·과학 기능을 양대 체육회 중심으로 통합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창욱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지원센터장은 과학원의 미흡한 지원 활동에 관해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장애인 선수들은 비장애 선수의 1/20 수준의 예산으로 9개 종목에 관해서만 지원받고 있다"며 "아울러 이천 선수촌 내 장애인 특화 측정 장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센터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장애인 체육에 관한 스포츠 의·과학 지원 활동은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과학원의 지원 활동 문제에 관해 꼬집기도 했다.

김동현 역도 대표팀 코치는 "과학원은 2020년 선수들의 동의 없이 측정 결과를 논문자료로 활용하는 등 연구원 실적을 쌓는 데 집중했다"며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원한다"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 ◇ 문체부·과학원 "스포츠 과학 지원, 객관성 유지해야...지적 사항 보완하겠다"

반면 과학원은 예산의 중복 투자와 양대 체육회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며 과학원이 스포츠 의·과학 지원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적사항에 관해선 보완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송홍선 과학원 스포츠과학연구실장은 "과학원은 42년간 경험을 쌓았다"며 "이를 두 기관에 분산하면 노하우와 전문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송 실장은 "미비하다고 지적받은 정보공유 문제에 관해선 관련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2년 내 연구원 1인이 1~2개의 종목만 담당하는 전문담당제를 실현하고 현재 스포츠 의·과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개 종목에 관해 연구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태경 체육정책과장도 스포츠과학 지원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스포츠 의·과학 연구와 지원이 체육단체에 종속하면 연구와 지원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선수들에게 비밀이 보장된 지원을 하기 위해선 훈련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대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포츠 의·과학 지원 활동의 양대 체육회 이관 움직임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 힘 배현진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스포츠 의·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법적 기능을 부여하고, 국가대표 선수 훈련지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전체 회의에서 계류 중이다.

전북도의전경찰서

# 부하직원 폭행 혐의 전북체육회 간부 검찰 송치

전북체육회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전북체육회 간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을 때리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된 뒤에도 수차례 찾아가 2차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정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내용을 조사해 경미하지만 A 씨의 폭행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낸 적 있습니다.

A 씨는 직원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사건을 비롯해 업무 추진비 부정 지출,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달 파면된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 ■ 제보하기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 전화 : 02-781-1234
- ▷ 이메일 : kbs1234@kbs.co.kr
-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년 스포츠산업 현장 실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모집대상

국내 스포츠기업 및 체육분야 협·단체(연맹, 협회, 프로구단 등)  
\* 공고일 기준 근로자 수(고용보험가입자 수) 10명 미만 기업 신청 불가

### 모집기간

2022.5.12 (목) ~ 5.31 (화) 15: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잡스포이즈

\* 신청서류 기반 적격여부 심사 후 실습생 매칭 성사 시 지원 대상 확정

### 항후일정



### 지원내용

스포츠산업 구직 희망자 및 기업간 현장 실습 매칭 및 운영 지원

#### 1 구직자-기업간 매칭

**매칭대상** 2022 Sports Cheer Up 교육\* 우수 수료자

\* 공단 주관 스포츠산업 취업교육: 직무별(마케팅·홍보/경영기획·행정) 역량 향상교육(약 5주)

\* 세부 교육프로그램 [별첨] 참조

#### 추진절차



#### 2 현장실습 운영 지원

**실습운영** 최대 3개월 이내 기업별 현장실습 운영 (1일 8시간, 주 3회, 주 20시간 이내)

\* 근무형태: 3자(공단+기업+교육생) 협약체결을 통한 현장 실습생(근로자 x)

**지원금액** \* 한 기업당 최대 5명, 3개월 이내

- 공단->기업: 현장실습 운영 수당 지급(교육생 1명당 100만원/월)  
- 공단->교육생: 현장실습 활동 수당 지급(80만원/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2년 스포츠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스포츠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스포츠산업 구직 희망자와 기업을 연결해 현장 실습을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2022 Sports Cheer Up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실습생을 적합한 기업에 연결해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공단은 '2022 Sports Cheer Up 교육'을 통해 약 5주간 마케팅·홍보, 경영기획·행정 등 역량 향상교육을 운영하고, 우수 교육 수료자 순으로 기업과 현장실습 매칭을 실시한다.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 동안 기업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공단-기업-교육생 간 3자 협약체결을 통해 운영한다.

기업은 교육생 1명 당 월 100만원의 운영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생 역시 공단으로부터 현장실습 활동 수당을 월 80만원씩 지원받는다.

모집 대상은 국내 스포츠기업 및 체육분야 협·단체(연맹, 협회, 프로구단 등)로서, 공고일 기준 근로자 수(고용보험가입자 수)가 10명을 넘어야 한다.

모집 기간 중 '잡스포이즈' 홈페이지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류 기반으로 적격여부를 심사 후 '2022 Sports Cheer Up 교육' 우수 수료생과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매칭이 성사되면 참여 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스포츠산업 구직 희망자는 현장실습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인력과 함께 운영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구직 희망자와 참여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 대한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서포터즈 '2022 국대 스마터즈' 모집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스포츠마케팅 서포터즈

## 국대 스마터즈 모집

모집 일정 : 2022년 5월 16일(월)~5월 29일(일)




### 모집 대상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스포츠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전국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또는 일반인
- 개인 신청 또는 팀(4인 1팀)단위 신청 지원 가능

### 활동 기간

- 합격 발표일로부터 2022년 11월 까지(약 6개월간)

### 지원 방법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문 확인 및 공고문 내 첨부된 지원 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marters@sports.or.kr)

### 활동 내용

- 스포츠마케팅 역량교육 및 워크샵 (총 9회 예정 -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포함)
- 스포츠마케팅 멘토와의 팀별 회의 (2회)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마케팅 기획/실행 (홍보/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프로젝트 미션 수행 등)

### 활동 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원
- 담당 종목의 훈련, 대회 참관 기회 제공 및 국가대표 선수 인터뷰 기회 제공
- 대한체육회장 명의의 활동 인증서 제공
- 우수 서포터즈 시상

※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및 모집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회원종목단체란?

- 대한체육회 산하의 각 종목별 국내 연맹/협회로,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 국내/외 대회 개최 등 종목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문의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국대스마터즈 신청 문의' 검색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www.sports.or.kr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마케터 서포터즈 지원자를 찾는다.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선수들을 홍보하고, 나아가 종목단체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포터즈 프로그램 '2022 국대 스마터즈'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원종목단체 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스포츠에 관심 있는 MZ세대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마케팅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대한체육회 산하 여러 종목 및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종목별 주요 대회 현장 취재 및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활동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이며, 스포츠마케팅 현업전문가 특강 및 멘토링을 통한 역량 교육, 종목별 홍보 콘텐츠 제작(국내외 훈련 및 대회 현장 취재, 국가대표 인터뷰 등)을 통한 서포터즈 활동, 정기 워크숍(월 1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16일부터 29일 자정까지 모집하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우수한 이들을 우대한다. 또한,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대한체육회장 명의의 활동인증서를 제공하며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우수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국대 스마터즈 활동은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스포츠 현장과 실무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체육회, 우크라이나 스포츠공동체 2500만원 지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0\\_0001865791&cID=10501&pID=105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0_0001865791&cID=10501&pID=10500)

국민체육진흥공단, Sh수협은행과 함께 해안 정화활동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51611195878713>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7일 개막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5160100128610008757&servicedate=20220516>

박진감 넘치는 스쿼시, 생활체육 인기종목 급부상

[https://gjfin.saramin.co.kr/\\_service/zlight/apply\\_site/apply/recruit\\_default.asp](https://gjfin.saramin.co.kr/_service/zlight/apply_site/apply/recruit_default.asp)

수업도 체육대회도 스스로....학생 자치 확대

[https://www.ytn.co.kr/\\_ln/0115\\_202205152245468071](https://www.ytn.co.kr/_ln/0115_202205152245468071)

"체육계·여성 목소리 대변" ...당구여제 차유람, 국민의힘 입당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5/422770/>

국민체육진흥공단, 협력기업들과 함께 상생·발전 모색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51516480382097>

구미시, '전국소년체육대회' 연계 메타버스 플랫폼·체험존 운영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933>

'청정 스포츠 메카' 정선에서 각종 체육대회 재개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061900062?input=1195m>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